

탈역사적 차원에 집착한 아쉬움

류시화의 《외눈박이 물고기의 사랑》을 읽고

정호구

문학평론가 · 충북대 국문과 교수

류시화는 제도권내 문단에서 활동하는 시인이 아니다. 그러나 그의 이름은 제도권내에서 활동하는 그 어떤 시인의 경우보다 널리 알려져 있다. 실제로 학생들에게 대학에서 시를 가르치다 보면 류시화의 시를 좋아하는 학생들이 적지 않다. 뿐만 아니라 류시화는 최근에 산문집 《하늘 호수로 떠난 여행》(열림원)을 펴냄으로써 또한 산문 쪽에서도 많은 독자들의 사랑을 받는 베스트셀러 작가로서의 면모를 유지하고 있다.

그렇다면 어떤 점으로 인하여 류시화의 책이, 그 중에서도 그의 시집 《외눈박이 물고기의 사랑》(열림원)이 독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 시집이 갖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간략하게 생각해보기로 한다.

첫째, 류시화의 시집은 쉽게 읽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시집이 쉽게 읽힌다는 것을 내용이 가진 수준의 높낮이와 곧바로 연결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 내가 보기에 류시화의 시는 상당히 수준 높은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것을 전달하는 방식이 아주 쉽게 이루어져 있다. 뭐니뭐니해도 시집이 쉽게 읽힌다는 것은 일단 그 시집이 갖고 있는 장점이 아닐 수 없다.

둘째, 류시화의 시집은 독자들로 하여금 신화적·우주적 차원에서 삼라만상과 합일되는 느낌을 체험하도록 만들어준다. 그럼으로써 세속적이며 역사적인 차원에서 경험했던 골 깊은 단절감을 잊거나 극복하고 더 높은 차원에서 절대 긍정의 종교심 같은 감정을

갖게끔 만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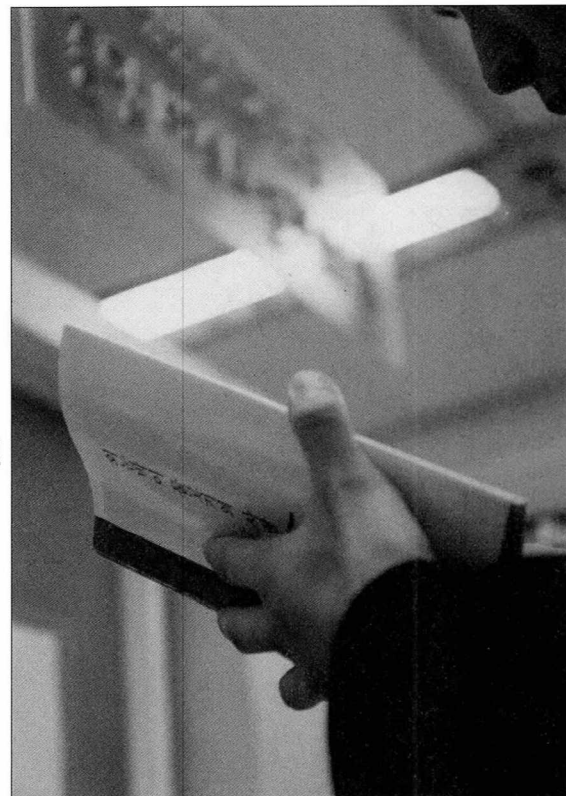
인간이 역사적 존재이기 이전에 자연적 존재이자 우주적 존재라는 점을 생각할 때, 인간이 역사 이전의 세계에서 합일감을 맛보려고 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로 여겨진다.

셋째, 류시화의 시집은 독자들이 가진, 이른바 생에 대한 깨달음의 욕구를 충족시켜 준다. 사실 인간들은 이 무명의 땅에서 끊임 없이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길을 찾으며, 깨달음에 대한 갈증을 안고 살아간다. 그런데 류시화는 그의 시집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일상적인 삶에 충격을 주면서 그들은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로 인한 깨달음의 희열을 맛보도록 이끌어간다.

넷째, 류시화의 시집은 이성과 문명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차갑게 단혀졌던 우리들의 감성의 문을 열어 주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우리의 몸이 부드럽고 따뜻하게 숨쉬며 살아 있다는 것을 거의 느끼지 못하는 게 사실이다. 그런데 류시화의 시집은 지속적으로 우리를 자극하면서 단혀졌던 그 감성의 문을 부드럽고 따뜻하게 열어놓으라고 속삭여 준다.

끝으로 류시화의 시집은 지친 인간들을 위로해주고 있다. 위로하기보다 위로받고 싶어하는 인간들로 가득찬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로부터 위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사람들이 그곳으로 몰려드는 것은 당연하다. 그의 시점으로부터 위로를 받은 인간들은 순간적이나마 '텃민 충만' 혹은 '잔잔

류시화의 시집은 탈역사적인 측면에만 너무 집착했다는 아쉬움을 갖고 있다. 역사적인 성찰이 토대를 이루지 못했을 때 자칫 초월적 환영과 같은 것으로 끝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도 갖게 한다. 또 그의 밑바탕을 이루는 '인도체험' 역시 비현실적인 측면에 초점이 맞춰진 것 같다는 느낌이다.



한 고요함'과 같은 감정을 맛보고, 어떤 생의 충일감 속에 빠져든다.

그러나 류시화의 시집은 탈역사적인 측면에만 너무 집착했다는 아쉬움을 갖고 있다. 그리고 역사적인 차원에 대한 깊은 성찰이 토대를 이루지 못했을 때, 그것이 자칫 탈역사적 차원에서 벌어지는 일종의 초월적 환영과 같은 것으로 끝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도 갖게 한다.

이와 더불어 한가지 더 말하고 싶은 것은

류시화의 생과 책의 밑바탕을 이루는 것이 그의 '인도체험'인 것으로 짐작되는데, 그가 전해주는 인도체험이 다소 비현실적인 측면으로 초점이 맞추어진 것 같은 느낌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인도는 일차적으로 사람들이 사는 현실세계이지 결코 신비의 세계가 아니기 때문이다. ❖

출판 디자인의 모든 것



다름기획, 디자인의 비상구입니다.

DR 표지디자인 · 일러스트 · 광고디자인 · 사보 · 카탈로그
다름기획

DARUM Publication Design Planning TEL: (02)707-0572,3 FAX: (02)707-2975

다름기획의 장인정신 ㉓

석굴암(국보 제24호)

자연과 예술의 가장 완벽한 조화

영광과 상처를 한몸에 지닌 채 지금도 의연한 모습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는 석굴암. 그 앞에 서면 우리는 온몸으로 밀려오는 고요한 감동과 전율에 오직 침묵할 뿐입니다. 석굴암에 서려 있는 치밀한 기술과 오묘한 신비를 이루 다 형언할 순 없지만, 자연과 예술을 일찍이 이렇게도 완벽하게 조화시킬 줄 알았던 선조들의 장인정신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진정한 장인정신으로 최선을 다하는 마음, 바로 다름기획의 마음가짐입니다.

DR 표지디자인 · 일러스트 · 광고디자인 · 사보 · 카탈로그
다름기획

DARUM Publication Design Planning TEL: (02)707-0572,3 FAX: (02)707-2975